

## 로마서 6:1-7 Exposition 죄에 대하여 죽은 옛사람

오늘부터 저는 로마서 6-8 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아담의 원죄의 전가로 말미암은 죄책과 오염의 제거가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죄책과 오염의 제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하여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죄책과 오염의 제거!

죄책이 어떻게 제거되니까?

이것은 사망이 어떻게 제거되니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망의 제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형벌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염이 언제 제거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옛사람의 죽음을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중생한 사람을 영에 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8 :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는 말은 중생을 말하고, 그런 사람은 be 동사를 사용하여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을 우리는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신앙 생활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성경 전체의 수수께끼를 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칭의되어 죄책에서 해방되는 것은 단순간에 단번에 됩니다.

그렇지만 옛사람을 죽은것으로 여기는 일은 일평생 계속됩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은 일평생 계속됩니다. 오늘 부터 하는 공부를 통해 이 대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각 구절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합시다.

## 로마서 6 :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지금 읽은 로마서 6:1 은 5:20-21 에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로마서 5 : 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 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 :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20 절에 “ 죄가 더 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6:1 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죄가 더 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말을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용서를 갈구하게 되고, 그럴수록 용서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죄를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안다고 말이 이 뜻입니다. 배고파 본 자가 배브름의 고마움을 알고, 죄에 문제로 고민해 본 사람이 용서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 예수님은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 : 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 로마서 6 :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구절은 ‘죄용서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모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신자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죄가 죽어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의무가 면제된 것입니다. 이것이 해방의 시작입니다.

이점을 바로 이해해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말하는 로마서를 이해하게 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 :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 :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세례의 바른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에 담그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식입니다. 이것은 예식이라 그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도릭에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례명이라는 것을 주는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를 줄때 물에 쳐박아 두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들어 오심으로 실제화됩니다. 신자의 새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고쳐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나타내심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은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세 해방된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누리기 위해 새생명 가운데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생한 신자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 :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5 For if we have been planted together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we shall be also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우리 말은 정확치가 못합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σύμφυτος(soomfootos)**로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말은 그의 죽으심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에도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얌 나무를 감나무에 접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얌은 마치 감처럼 생겼는데 아주 작지만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감은 크지만 고얌처럼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얌 남가지를 감나무 가지에 접붙이면 감처럼 큰 열매가 고얌처럼 많이 매달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비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얌이 감나무의 진액을 받아 감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히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가 맺히리라는 말입니다. 미래의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 : παλαιός(Palraios) ἄνθρωπος(Anthropos)**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에게서 오염이 언제 제거되는 것입니까?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때’**에 입니다.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때’** 언제 입니까?

예수를 믿어 중생한 그 때입니다. 이 때부터 우리는 영에 있게 되고, 이 때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때입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오염이 제거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십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한참 있다가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 : 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로마서 6 :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오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자신이 오염의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무엇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중생한 신자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닌, 어떤 **고착된 인격**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인 성령충만함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성령의 지배아래 굴복시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 : 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carnal = σαρκικός),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 2 Corinthians 10:4 (KJV)

<sup>4</sup>(For the weapons of our warfare *are* not carnal but mighty through God to the pulling down of strong holds;)

고린도후서 10 : 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5 절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든 생각’이 바로 우리 안에 고착화된 인격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절에서 육체는 σαρκικός 인데, 이 말은 (고전 3:1 에서도 쓰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어린 성도들 안에 남아 있는 타락한 성품을 말합니다. 이런 육적 성품(carnal = σαρκικός)으로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영적 전쟁의 expert 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착된 인격을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로마서 8 : 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 :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 :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 :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우리 안에 고착된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 : 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 Luke 11:20 (KJV)

<sup>20</sup>But if I with the finger of God cast out devils, no doubt the kingdom of God is come upon you.

귀신을 쫓아 낸다는 말을 꼭 문자 그대로 귀신으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시 하는 고착된 생각 인격을 제거 하는 것을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고착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고착된 인격! 이것을 벗어 벗어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타락한 인류안에 고착된 인격을 Palaios Anthropos 라고 하여 옛사람,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문화의 총칭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에 속아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지만, 다가 온것은 해방이 아니고 환경에의 예속, 죄에의 예속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이 속제를 해결한 사람은 값값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 **죄의 몸 σώμα(soma) of ἁμαρτία(hamaltia)**

죄의 몸은 σώμα(soma) of ἁμαρτία(hamaltia)인데, KJV 에는 body of sin 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해석에 오해가 많습니다.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우리의 육신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 우리의 몸이 죄를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의 몸을 멸한다고 하는 말은 죄를 생산하는 우리 몸을 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은 여기서 몸은 머리로 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그리서 죄의 몸은 사탄을 머리로 하여 움직이는 죄의 조직체를 말합니다.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에도 σώμα(soma) of Christ 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머리인 그리스도로 부터 생명을공급받아 움직이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 **멸하여 καταργέω(kartargeo)**

‘멸하여’는 καταργέω(kartargeo)로써 존재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효력이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dnfldml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죄의 조직이 무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로써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죄의 조직이 무능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 **로마서 6 :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7 For he that is dead is freed from sin.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한 말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므로 죄와 관계가 없어지고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